

## 『醫學入門』에 반영된 瘧疾의 學術繼承과 成果\*

世明大學校 韓醫科大學 原典醫史學教室<sup>1</sup>

趙學俊<sup>1 \*\*</sup>

### The Scientific Succession And Fruits Of Hakgil(Malaria, 瘧疾) In *Euhakibmun*(醫學入門)

Jo Hak-jun<sup>1 \*\*</sup>

<sup>1</sup>Dept. of Korean Medical Classics & Medical History, Semyung University

**Objectives** : I would find out the developmental succession and results of Li Ting(李樅)'s research for hakgil(malaria, 瘧疾) reflected in *Euhakibmun*(醫學入門).

**Methods** : I had searched from which books the original contents of *Euhakibmun*(醫學入門) came, in aspects of classification, causes, mechanism, symptoms, differentiation and medical treatments of malaria.

**Results** : Lee Cheon(李樅) classified causes of malaria from the viewpoint of Yin and Yang, and made its medical treatment modalities definite. He used its prescriptions rationally and analytically according to the classification of malaria which he suggested.

**Conclusion** : Lee Cheon(李樅)'s studies on malaria(瘧疾) in *Euhakibmun*(醫學入門) were very creative and special unlike existing assessment known in Korean medicine academic world.

**Key words** : Malaria(瘧疾), *Euhakibmun*(醫學入門).

### I. 序 論

瘧疾은 瘧病, 瘧瘧이라고 불리며, 일정한 사이를 두고 惡寒戰慄과 發熱이 엇바뀌면서 주기적으로 발작하는 病症으로서<sup>1)</sup> 흔히 여름, 가을에 발생한다고

알려져 있다.

瘧疾은 또한 瘧, 瘧病, 瘧瘧 외에 疢<sup>2)</sup>, 疢瘧, 疢疾이라고도 불리며, 中國의 민간에서는 또한 ‘脾寒이 생겼다.’<sup>3)</sup>라고 부르거나, 또는 ‘시계추처럼 흔들린다(打擺了).’<sup>4)</sup>라고 부르고 있는데 惡寒戰慄하여

\* 이 논문은 2012학년도 세명대학교 교내학술연구비 지원에 의해 수행된 연구임

\*\* 교신저자 : 조학준. 충북 제천시 신월동 세명로 65번지. 세명대학교 한의과대학 원전외사학교실.

Tel : 043-649-1347. Fax : 043-649-1702.

E-mail : palm01@hanmail.net

접수일(2013년 4월 13일), 수정일(2013년 5월 11일),

게재확정일(2013년 5월 15일)

1) 과학백과사전종합출판사 編著. 재편집 동의학사전. 서울. 도서출판 까치. 1990. p.1128.

2) 左丘明. 春秋左氏傳(人). 대전. 學民文化社. 1990. p.241. “齊侯疥, 遂店期而不瘳, 諸侯之賓問疾者多在.”

3) 高大民族文化研究所 中國語大辭典編纂室. 中韓辭典. 서울. 高大民族文化研究所. 1993. p.1722.

4) 高大民族文化研究所 中國語大辭典編纂室. 中韓辭典. 서울.

몸을 떠는 모양을 시계추에 빗대어 생긴 표현인 듯하다.

瘧疾은 『內經』에 나타난 질병의 기록 중 가장 상세한데, 일찍이 王肯堂은 “『內經』에서 병을 논한 여러篇 중에 오직 瘧論이 가장 자세하다.”<sup>5)</sup>고 하였다.

瘧疾을 『素問』에서 瘧, 瘧瘧이라고 표현하였는데, 『素問·瘧論』에 “무릇 瘧瘧은 다 風에서 생긴다.”<sup>6)</sup>고 하고, 『素問·生氣通天論』에서 “여름에 더위에 상하면 가을에 瘧瘧이 된다.”<sup>7)</sup>고 하였다.

『素問·瘧論』, 『素問·刺瘧論』 등에서 瘧疾의 病因, 病機, 症候分類, 臨床症狀, 鍼灸治療 등에 대해 체계적이고 자세하게 논하고 있다는 점을 미루어 보면 당시에 이미 瘧疾에 대해 연구가 상당히 진척되었음을 알 수 있다.

현재까지 瘧疾에 대한 한의계의 연구로서 柳<sup>8)</sup>는清代까지의 醫書를 위주로 瘧疾의 症狀과 機轉을, 姜<sup>9)</sup>은 瘧疾 發顯의 主體를, 윤<sup>10)</sup>은 瘧疾과 말라리아의 관계를, 김<sup>11)</sup>은 瘧疾의 刺絡瀉血 治療法을 문헌으로 고찰한 적이 있고, 이<sup>12)</sup>는 동물실험을 통해 『東醫寶鑑·瘧疾門』에 多用된 龍葵, 茵陳, 海桐皮, 黃芩, 黃連, 黃柏의 항말라리아 효과를 실험으로 검증한 것 등이 있다.

이 연구에서 다루고자 하는 『醫學入門』의 瘧疾에 대한 내용은 「雜病篇」에 실려 있으며, 「集例」에 의하면 「雜病篇」은 『世醫得效方』<sup>13)</sup>, 『丹溪心法附餘』<sup>14)</sup>, 『醫方捷徑』<sup>15)</sup>, 『醫學權輿』<sup>16)</sup>, 『玉機微義』<sup>17)</sup>, 『袖珍方』<sup>18)</sup>, 『仁齋直指』<sup>19)</sup> 등을 인용하였다고<sup>20)</sup> 著者 李梴은 밝히고 있다.

『醫學入門』에 대한 기존의 평가는, 各家를 종합하여 완성한 것으로 특출한 점은 없다고<sup>21)</sup> 내려져 있기에, 『醫學入門』의 瘧疾에 대한 내용에 누구의 어떤 學說이 반영되어 있는지, 그 성과와 수준은 어느 정도인지에 대한 관심과 연구는 이루어지지 않고

高大民族文化研究所. 1993. p.64.

5) 王肯堂. 王肯堂醫學全書證治準繩雜病寒熱門瘧. 중국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2006. p.49. “『內經』論病諸篇, 唯瘧論最詳.”  
6) 洪元植. 精校黃帝內經素問. 서울. 東洋醫學研究院. 1985. p.130. “夫瘧瘧皆生於風”  
7) 洪元植. 精校黃帝內經素問. 서울. 東洋醫學研究院. 1985. p.17. “夏傷於暑 秋爲瘧瘧”  
8) 柳姪我, 朴贊國. 瘧疾의 症狀과 機轉에 대한 文獻의 考察. 대한한의학회지. 1999. 12(1).  
9) 姜孝振, 丁彰炫, 張祐彰, 柳姪我, 白裕相. 瘧疾 發顯의 주체와 機轉에 대한 고찰. 대한한의학회지. 2012. 25(3).  
10) 윤석희. 瘧疾의 개념과 말라리아의 관계 연구(소현세자의 질병기록을 중심으로). 경희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2.  
11) 김동휘, 정장현, 장우장, 유정아, 백유상. 瘧疾의 刺絡瀉血 治療法에 대한 고찰. 대한한의학회지. 2011. 24(4).  
12) 이승훈. 東醫寶鑑의 瘧疾 處方에 多用되는 韓藥材에 대한 抗 말라리아 效能과 細胞毒性에 대한 研究. 원광대학교 한의학전문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03.

13) 危亦林. 世醫得效方(欽定四庫全書·子部·醫家類 12) 中. 서울. 大星文化社. 1995.  
14) 朱震亨 著. 方廣 編註. 丹溪心法附餘. 서울. 大星文化社. 1990.  
15) 明代에 발간된 『醫方捷徑』은 『醫方捷徑指南全書』(王宗顯. 醫方捷徑指南全書. 北京. 中醫古籍出版社, 1991.)와 『醫方捷徑』(羅必焯. 醫方捷徑. 北京. 全國圖書館文獻縮微復制中心. 2004.)의 두 종류가 있다. 한편 『中國醫籍考』(丹波元胤. 中國醫籍考.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83. p.798.)과 『古今醫統大全』(徐春甫. 古今醫統大全. 서울. 아울로스출판사. 1994. p.61.)에는 王宗顯의 서적이라고 소개되어 있다.  
16) 『醫學權輿』은 현재 온전히 전해지지 않고 있다. 『醫學入門·歷代醫學姓氏』에는 虞搏의 저서라고 소개하고 있지만 『古今醫統大全』에는 傅滋의 저서라고(徐春甫. 古今醫統大全. 서울. 아울로스출판사. 1994. p.61.) 밝히고 있고, 『中國醫籍考』에는 王文煥 百家名書에 4권 중 1권만 간행되어 남아 있으며, 著者나 編者를 알 수 없다고(丹波元胤. 中國醫籍考.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83. p.747.) 밝히고 있다. 한편 진주표는 『新對譯 編註醫學入門』에서는 『醫統』의 기록에 따라 明代 孫滋의 저서라고(진주표. 新對譯 編註醫學入門. 서울. 法仁文化社. 2009. p.193.) 보았다.  
17) 劉純. 劉純醫學全書玉機微義. 중국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2006.  
18) 『古今醫統大全』에 明代 瀕陽王府에서 모아 간행한 4권이 있었다고(徐春甫. 古今醫統大全. 서울. 아울로스출판사. 1994. p.54.) 기록하고 있으나, 『中國醫籍考』에 의하면 『袖珍方』에 대한 기록은 없다. 현재 明代 저자 미상의 『新刊袖珍方大全』(저자 미상. 新刊袖珍方大全. 北京. 全國圖書館文獻縮微復制中心. 2004.)이 전해지고 있다.  
19) 楊士瀛. 仁齋直指(欽定四庫全書·子部·醫家類 12) 中. 서울. 大星文化社. 1995.  
20) 李梴. 醫學入門(上). 서울. 南山堂. 1991. p.15. “雜病竊危氏『得效方』意, 及丹溪用藥總法, 而提其風, 寒, 暑, 濕, 燥, 火, 氣, 血, 痰, 鬱大綱於前, 稍從『丹溪附餘』, 小目分類於後. 其歌括一以『捷徑』, 『權輿』爲主, 而改補之, 更用『玉機微義』, 『袖珍』, 『仁齋直指』, 葛氏等方分註於下.”  
21) 洪元植. 中國醫學史. 서울. 東洋醫學研究院. 1987. p.259.

있다.

이에 『醫學入門·瘧』의 내용에 대해 瘧疾의 病因·病機, 症候分類, 治法과 處方의 측면으로 나누어 그 淵源을 탐색함으로써 『醫學入門·瘧』의 學術繼承과 成果를 고찰하고자 한다.

## II. 本 論

### 1. 瘧疾의 病因·病機

李梴은 『醫學入門』에서 瘧疾의 病因을 大陰陽의 觀點에서 外感을 陽으로, 內傷을 陰으로 크게 구분하고, 다시 小陰陽의 觀點에서 外感을 風暑의 陽과 寒濕의 陰으로 세분하고, 內傷을 氣虛의 陽과 血虛의 陰으로 세분하고 있다.<sup>22)</sup>

일찍이 宋代에 陳無擇은 『三因極一病證方論·瘧發論』에서 瘧疾의 病因을 확대하여 三인이 모두 瘧을 일으킨다고 인식하여 “무릇 瘧疾에 內因, 外因, 不內外因의 세 가지 원인이 갖추어져 있다. 外因은 四氣에 感觸된 것이고, 內因은 七情에 動하는 것과 飲食의 齟齬리고 배부름과 房室과 過勞와 게으름이 원인이니, 모두 능히 瘧疾을 발생하게 한다.”<sup>23)</sup>이라고 하였다.

陳無擇은 또한 寒瘧, 溫瘧, 癘瘧, 濕瘧, 牝瘧은 外因으로 분류하고, 肝瘧, 心瘧, 脾瘧, 肺瘧, 腎瘧 등의 五臟瘧은 內因으로 분류하고, 疫瘧, 鬼瘧, 瘴瘧, 胃瘧, 食瘧, 勞瘧, 老瘧(母瘧)은 不內外因으로 분류하였는데,<sup>24)</sup> 그 중 食瘧을 처음 제시하여 明代 醫家 吳昆의 ‘食積成瘧’<sup>25)</sup>說을 주장하는 데 크게 영향을 미쳤으며, 그로 인해 학술상 논쟁을 불러일으켰다.

嚴用和는 『濟生方·諸瘧門』에서 “瘧疾의 이름은 하나가 아니니, 이른바 癘瘧, 寒瘧, 溫瘧, 食瘧, 牝

瘧, 牡瘧의 따위가 다 寒과 熱의 두 기운이 변화한 것이다.”<sup>26)</sup>라고 하였으니, 瘧疾의 分類가 주로 寒熱이 偏盛에 의함을 밝혔다.

嚴用和는 또 최초로 ‘無痰不成瘧’<sup>27)</sup>說을 제시하여 後世에 큰 영향을 끼쳤는데, 張介賓 등은 ‘無痰不成瘧’說에 반대하였다.

金·元代에 張子和는 『儒門事親·瘧非脾寒及鬼神辨』에서 瘧疾이 飲食 또는 鬼神으로 인하여 발생한다는 陳無擇의 觀點이 잘못되었다고<sup>28)</sup><sup>29)</sup> 하였다.

明代에 張介賓은 『景岳全書·瘧疾』에서 이로써 張介賓은 『景岳全書·瘧疾』에서 瘧疾을 脾寒이라고 부르는 이유와 이런 名稱의 이점과 폐단을 설명함으로써<sup>30)</sup> 痰, 食이 瘧疾의 病因이 아님을 정확히 지적하였다.

이로써 『醫學入門』에 나타난 瘧疾의 病因은 『三因極一病證方論』에서 外因, 內因, 不內外因으로 구분한 것에서 최초로 기인하고, 다시 張仲景의 外感學說과 李東垣의 內傷學說을 계승하였을 뿐만 아니라, 李梴이 더 나아가 瘧疾의 病因·病機를 陰陽의 觀點에서 해석하고 부연한 것임을 알 수 있다.

### (1) 寒熱發作的 週期

22) 李梴, 『醫學入門(下)』, 서울: 南山堂, 1991. pp.1475-1476.

“陽爲外感, 邪氣, 其間, 陽爲風暑, 有汗; 陰爲寒濕, 無汗, 陰爲內傷, 正氣虛, 其間, 陽爲氣虛, 陰爲血虛. 陽爲升, 發在春夏; 陰爲降, 發在秋冬.”

23) 陳無擇, 『陳無擇醫學全書·三因極一病證方論』, 중국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2006. p.79.

24) 陳無擇, 『陳無擇醫學全書·三因極一病證方論』, 중국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2006. pp.80-82.

25) 吳昆, 『吳昆醫學全書·醫方考』, 중국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2006. p.46. “食瘧者, 食積成瘧也.”

26) 嚴用和, 『嚴用和醫學全書·重輯嚴氏濟生方』, 중국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2006. p.61.

27) 嚴用和, 『嚴用和醫學全書·重輯嚴氏濟生方』, 중국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2006. p.61.

28) 張子和, 『張子和醫學全書·儒門事親』, 중국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2006. p.23. “又或因夏日飲冷過常, 傷食生硬, 瓜果, 梨棗之屬, 指爲食瘧, 此又非也.”

29) 張子和, 『張子和醫學全書·儒門事親』, 중국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2006. p.23. “及其瘧之甚者, 則歸之崇怪, 豈可不大笑耶? 『內經』拘於鬼神者, 不可與言至德.”

30) 張介賓, 『懸吐註釋·景岳全書』, 서울: 法仁文化社, 2007. pp.273-274. “或問: 俗以瘧爲脾寒, 何也? 曰: 此亦有理. 蓋暑盛陽極, 人以伏陰在內, 脾因體倦, 腠理開發; 或因納涼於水閣木陰, 及泉水澡浴, 而微寒客於肌肉之間, 經所謂遇夏氣淒滄之水寒迫之是也; 或勞役飢飽內傷而卽病作, 故指肌肉屬脾, 發則惡寒戰慄, 乃謂之脾寒耳. 實由風寒暑濕之邪, 鬱於腠理, 夏時毛竅疏通而不爲病, 至秋氣收斂之際, 表邪不能發越, 故往來寒熱, 進退不已, 病勢如凌虐人之狀, 所以名瘧. 卽如四時傷寒, 十二經皆能爲病. 古方治法, 多兼內傷取效, 脾胃和而精氣通, 則陰陽和解, 此實非脾病也. 然古人稱瘧不得爲脾寒者, 正恐人專於溫脾之說, 不明造化之源, 而失病機氣宜之要故也.”

첫째 瘧疾의 寒熱發作이 주기적으로 교대로 나타나는 이유는 『素問·瘧論』에 의하면 瘧邪가 虛와 盛이 교대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sup>31)</sup>

瘧疾의 寒熱發作은 하루걸러 한번 發顯되는 것이 가장 흔한데, 『諸病源候論·瘧病諸候·間日瘧候』에서 ‘間日瘧’이라는 病名을 처음으로 사용하였다.<sup>32)</sup>

만약 瘧氣가 陰分에 들어가서 運行이 더 늦으면 이를 걸러 發顯하게 되면, 이를 ‘三陰瘧’ ‘三瘧症’ 또는 ‘三日瘧’이라고 한다. 明代 『症因脈治·卷四·三瘧』에서 “이들을 건너서 발작하므로 ‘三瘧症’이라고 한다.”<sup>33)</sup>고 하였고, 清代에 韓善徵은 『瘧疾論·按』에서 ‘三日瘧’이라는 명칭을 처음 사용하였다.<sup>34)</sup>

李梴은 瘧疾의 寒熱發作의 週期에 대해, 『素問·瘧論』<sup>35)</sup>에 근거하여 하루를 걸러서 발작하거나 또는 3,4일에 한 번 발작하거나 더 오래되면 瘧母가 된다고<sup>36)</sup> 하였다.

둘째 瘧疾의 寒熱發作 주기가 차이가 나는 이유에 대해, 『素問·瘧論』에서 “그 하루를 걸러서 발작하는 것은 邪氣가 안으로 五藏에 꺾박하고 募原으로 빚겨서 이어지기 때문이다. 그 道가 멀고 그 氣가 깊고 그 行함이 더더서, 능히 衛氣와 함께 행하지 못하고 함께 나가지 못하므로 하루를 걸러서 발작한다.”<sup>37)</sup>고 하였다. 즉 瘧疾의 寒熱發作 주기는 瘧氣의 淺深과 그 運行의 遲速에 따라 衛氣와 서로 結集

하는 週期에 의해 결정된다는 것이다.

李梴은 『素問·瘧論』<sup>38)</sup>에 근거하여 “陽은 腑이니 邪가 알아서 榮衛와 함께 행하여 하루에 한 번 발작하고, 陰은 臟이니 邪가 깊어서 비스듬히 이어져서 능히 正氣와 함께 행하지 못하므로 하루를 걸러서 축적한 뒤에 발작하거나 또는 3~4일에 한 번 발작하고, 오래되면 반드시 瘧母가 있게 된다.”<sup>39)</sup>고 하여 臟腑深淺의 관점에서 陽瘧과 陰瘧의 寒熱發作 주기가 차이가 나는 機轉을 부연, 설명하였다.

셋째 瘧疾의 寒熱發作이 특정시간에 발생하는 이유에 대해, 李東垣은 『活法機要』에서 “卯時부터 午時까지 發作하는 자는 大柴胡湯으로 攻下하는 것이 마땅하고, 午時부터 酉時까지 發作하는 자는 그 邪氣가 안에 있는 줄을 아니 大柴胡湯으로 攻下하는 것이 마땅하고, 酉時부터 子時까지 發作하는 자나 혹은 寅時까지 이르는 자는 그 邪氣가 血에 있는 줄을 아니 桃仁承氣湯으로 攻下하는 것이 마땅하고, 약간 下利한 뒤에 다시 小柴胡湯으로 그 邪氣를 제압하는 것이 옳다.”<sup>40)</sup>고 하였다.

李梴은 『素問·瘧論』<sup>41)</sup>, 『活法機要』에 근거하여 脊背胸腹과 晝夜의 관점에서 陽瘧과 陰瘧에서 寒熱發作의 시기가 다른 이유를 부연, 설명하였다.<sup>42)</sup>

## (2) ‘無痰不成瘧’說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嚴用和가 『濟生方諸瘧門』에서 “無痰不成瘧”<sup>43)</sup>의 病機를 제시하여 後世醫家

31) 洪元植. 精校黃帝內經素問. 서울. 東洋醫學研究院. 1985. p.130. “陰陽上下交爭 虛實更作 陰陽相移也 陽并於陰 則陰實而陽虛 陽明虛 則寒慄鼓頷也 巨陽虛 則腰背頭項痛 三陽俱虛 則陰氣勝 陰氣勝 則骨寒而痛 寒生於內 故中外皆寒 陽盛則外熱 陰虛則內熱 外內皆熱 則喘而渴 故欲冷飲也”  
32) 巢元方. 巢氏諸病源候論. 서울. 大星文化社. 1992. p.97.  
33) 秦景明. 症因脈治. 臺北. 旋風出版社. 발행연도 미상. p.452. “以其間兩日而發, 故名三瘧症也.”  
34) 張伯輿 主編. 中醫內科學.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96. p.493.  
35) 洪元植. 精校黃帝內經素問. 서울. 東洋醫學研究院. 1985. p.130.  
36) 李梴. 醫學入門(下). 서울. 南山堂. 1991. p.1476. “間日蓄積乃發, 或三四日一發, 久則必有瘧母.”  
37) 洪元植. 精校黃帝內經素問. 서울. 東洋醫學研究院. 1985. p.130. “其間日發者, 由邪氣內薄於五藏, 橫連募原也. 其道遠, 其氣深, 其行遲, 不能與衛氣俱行, 不得皆出, 故間日乃作也.”

38) 洪元植. 精校黃帝內經素問. 서울. 東洋醫學研究院. 1985. p.130.  
39) 李梴. 醫學入門(下). 서울. 南山堂. 1991. pp.1475-1476.  
40) 李東垣. 李東垣醫學全書活法機要. 중국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2006. p.146.  
41) 洪元植. 精校黃帝內經素問. 서울. 東洋醫學研究院. 1985. p.130. “邪氣客於風府, 循膂而下, 衛氣一日一夜大會於風府, 其明日日下一節, 故其作也晏, 此先客於脊背也. 每至於風府則腠理開, 腠理開則邪氣入, 邪氣入則病作, 以此日作稍益晏也. 其出於風府, 日下一節, 二十五日下至骶骨, 二十六日入於脊內, 注於伏膂之脈, 其氣上行, 九日出於缺盆之中, 其氣日高, 故作日益早也.”  
42) 李梴. 醫學入門(下). 서울. 南山堂. 1991. pp.1475-1476. “陽爲日發, 邪淺, 榮衛晝行背與脊故也. 陰爲夜發, 邪深, 榮衛夜行胸與腹故也.”  
43) 嚴用和. 嚴用和醫學全書重輯嚴氏濟生方. 중국 北京. 中國

들에게 큰 영향을 끼쳤다.

常山은 瘧疾을 치료하는 데에 효과적이지만 嘔吐를 유발하는 부작용이 있기 때문에 明代 朱橚은 『普濟方·諸瘧門』에서 瘧疾의 原因이 痰涎이므로 痰涎을 吐出한 뒤라야 낫는다고 44) 하였다.

그러나 王肯堂은 『證治準繩·寒熱門·瘧』에서 常山の 截瘧과 催吐 작용을 마땅히 구분해야 한다고 주장하였고<sup>45)</sup>, 張景岳은 『質疑錄·論無痰不作瘧』에서 痰瘧의 病因과 分類를 인정하지 않았다.<sup>46)</sup>

明代 醫家인 劉純은 『玉機微義』에서 嚴用和의 ‘無痰不成瘧’이라는 學說의 잘못을 보완하여 ‘瘧而挾痰’이라는 學說을 제시하였다.<sup>47)</sup>

한편 劉純은 李梴과 함께 明代의 醫家이지만 보다 앞선 사람으로서 李梴은 『醫學入門·本草』를 저술할 때 劉純의 『玉機微義』와 『醫經小學』을 藍本으로 삼았다는<sup>48)</sup> 사실로 볼 때, ‘無痰不成瘧’說의 논란을 알지 못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그러나 李梴은 『醫學入門』에서 內傷瘧의 구체적인 치료에 대해 “瘧은 痰이 없으면 이루어지지 않는다. 內傷에 脾胃가 虛寒할 때에 마땅히 濕痰을 清利하는 것으로 위주로 한다.”<sup>49)</sup>고 함으로써 劉純의 의

견을 따르지 않고 嚴用和의 ‘無痰不成瘧’說을 따랐음을 알 수 있다.

『醫學入門』 이후로도 여전히 적지 않은 醫書에서 ‘無痰不成瘧’說을 따르고 있는데, 『證治彙補·瘧疾』<sup>50)</sup>, 『雜病源流犀燭·瘧疾源流』가 대표적이다.

### (3) 食瘧의 ‘食積成瘧’說

陳無擇은 『三因極一病證方論·瘧鼓論』에서 瘧疾의 病因을 확대하여 三因이 모두 瘧을 일으킨다고 인식하여 “무릇 瘧疾에 內因, 外因, 不內外因의 세 가지 원인이 갖추어져 있다. …… 內因은 七情에 動하는 것과 飲食의 齟齬리고 배부름과 房室과 과로와 게으름이 원인이니, 모두 능히 瘧疾을 발생하게 한다.”<sup>51)</sup>이라고 하였다.

宋代에 嚴用和는 『濟生方·諸瘧門』에서 “瘧疾의 이름은 하나가 아니니, 이른바 癘瘧, 寒瘧, 溫瘧, 食瘧, 牝瘧, 牡瘧의 따위가 다 寒과 熱의 두 기운이 변화한 것이다.”<sup>52)</sup>라고 하여 食瘧의 病因을 인정하였다.

그러나 金元 時代에 張子和는 『儒門事親·瘧非脾寒及鬼神辨』에서 瘧疾이 음식으로 인하여 발생한다는 觀點에 반대하였고,<sup>53)</sup> 明代의 劉純은 『玉機微義·瘧非脾寒及鬼食辨』에서 張子和의 견해를 따랐고,<sup>54)</sup> 張介賓도 『景岳全書·瘧疾』에서 食傷으로 인하여 瘧이 된다는 觀點에 대해 반대하였다.<sup>55)</sup>

中醫藥出版社. 2006. p.61.

44) 朱棣. 普濟方(『欽定四庫全書·子部·醫家類 21』中). 서울. 大星文化社. 1995. p.500. “瘧家多蓄痰涎黃水. 恒山爲能吐之利之, 是故然耳.”

45) 王肯堂. 王肯堂醫學全書證治準繩雜病寒熱門瘧. 중국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2006. p.50. “常山治瘧, 是其本性, 雖善吐人, 亦有蒸制得法而不吐者, 瘧更易愈, 其功不在吐痰明矣.”

46) 張介賓. 張景岳醫學全書質疑錄. 중국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2006. p.1843. “瘧邪隨人身之衛氣爲出入, 故有遲早, 一日間日之發, 而非痰之可以爲瘧也. 何也? 人身無痰, 痰者, 人身之津液也. 隨其邪之所在, 而血凝, 氣滯, 停飲, 宿食, 則津液即化爲痰, 是痰從邪氣而成病者也. 乃嚴用和論瘧, 謂“無痰不作瘧”, 若指痰爲瘧邪之主, 反以瘧邪爲痰病之客矣. 豈有人身津液變痰, 而爲寒爲熱以成瘧者乎? 痰本因瘧邪以生, 而非因痰以有瘧邪者.”

47) 劉純. 劉純醫學全書玉機微義. 중국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2006. p.158. “按此謂胃氣不和, 痰積中脘而成瘧, 則自內而生病於外也. 與素問風暑外傷雖異, 然外既受傷, 則內氣必鬱, 亦生痰, 此自外而生病於內也. 瘧而挾痰, 誠有之矣. 其引以無痰不成瘧之一句, 則失之偏也. 其用藥治法, 亦且未詳.”

48) 李梴. 醫學入門(上). 서울. 南山堂. 1991. p.14. “本草用『醫經小學』及『捷徑』, 『釋藥』, 『集韻』, 得『大觀』旨也.”

49) 李梴. 醫學入門(下). 서울. 南山堂. 1991. p.1480.

50) 李用粹. 證治彙補. 北京. 旋風出版社. 1972. p.163. “痰瘧, 因夏月多食瓜果油麵, 鬱結成痰, 熱多寒少, 頭疼心跳, 吐食嘔沫, 甚則昏迷卒倒, 寸口脈浮大者, 吐之; 關脈弦滑者, 化之; 若胸滿熱多, 大便燥實, 大柴胡湯下之.”

51) 陳無擇. 陳無擇醫學全書三因極一病證方論. 중국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2006. p.79.

52) 嚴用和. 嚴用和醫學全書重輯嚴氏濟生方. 중국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2006. p.61.

53) 張子和. 張子和醫學全書儒門事親. 중국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2006. p.23. “又或因夏日飲冷過常, 傷食生硬, 瓜果, 梨棗之屬, 指爲食瘧, 此又非也.”

54) 劉純. 劉純醫學全書玉機微義. 중국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2006. p.158.

55) 張介賓. (懸註註釋)景岳全書. 서울. 法仁文化社. 2007. p.276. “瘧疾之作, 本由風寒水濕之邪感而致病, 亦或有非風非水而衣薄受涼, 凡體怯者, 皆能爲瘧. 及其病深, 則未免因經及臟, 因表及裏, 故有不慎飲食而更甚者, 有不慎勞役而增病者, 總之無非外邪爲之本, 豈果因食因

한편 吳昆은 『醫方考』에서 “食積으로 인하여 瘧疾을 이룬다.”<sup>56)</sup>고 하여 『三因極一病證方論·瘧敍論』에서 제시한 食瘧의 病因이 ‘食積成瘧’이라고 명백하게 결론지었다.

『醫學入門』에서 食瘧을 언급하고 있는데, 이로써 李梴은 『三因極一病證方論』의 ‘食積成瘧’說을 간접적으로 따랐음을 알 수 있다.

한편 許浚은 『東醫寶鑑』에서 瘧疾을 經脈과 病因에 따라 六經瘧과 風瘧, 寒瘧, 熱瘧, 濕瘧, 痰瘧, 食瘧, 勞瘧, 鬼瘧, 疫瘧, 瘴瘧, 瘵瘧 등으로 구분하여 ‘食積成瘧’說에 동의하였음을 알 수 있다.

#### (4) 食瘧의 ‘脾寒成瘧’說

陳無擇은 『三因極一病證方論·瘧病內所因證治』에서 “草果飲, 治脾寒等瘧”<sup>57)</sup>이라고 하여 脾寒의 名稱을 처음으로 사용하였다.

그러나 劉純은 『玉機微義·瘧非脾寒及鬼食辨』에서 張子和의 말을 통해 瘧疾의 病機가 ‘脾寒’이 아니며, 脾寒의 名稱이 있다고 해서 함부로 熱藥을 사용하여 瘧疾을 治療하는 것은 금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sup>58)</sup>

張介賓은 『景岳全書·瘧疾』에서 劉宗厚의 말을 인용하여 瘧疾을 脾寒이라고 부르는 이유와 이런 名稱의 이점과 폐단을 설명함으로써 瘧疾의 病因이 痰, 食과 직접적으로 관련 없음을 논하였다.<sup>59)</sup>

『醫學入門·瘧』에서 비록 食瘧을 언급하였지만 『三因極一病證方論』의 草果飲은 수록하지 않고 淸脾飲을 사용한 것으로 보아 瘧疾의 치료에 溫脾法을 사용했다고 보기 어렵다. 이런 사실로는 李梴이 ‘脾寒成瘧’說을 따랐는지 여부를 단언하기 어렵다.

## 2. 症候分類

『醫學入門』에서 瘧疾을 그 症候에 따라 暴瘧, 溫瘧과 별도로 內傷瘧, 瘴瘧, 鬼瘧, 勞瘧, 痰瘧, 食瘧, 瘧母, 疫瘧 등으로 구분하였고, 또 脊背·胸腹과 晝夜의 관점에서 陽瘧과 陰瘧에서 寒熱發作的 시기가 다른 이유에 근거하여 “이들 동안 이어서 발작하다가 하루를 쉬는 경우와 낮과 밤에 각각 한 번씩 발작하는 경우는 氣血이 모두 병을 받은 것이다.”<sup>60)</sup>고 하여 陰陽이 분명히 나뉘지 않는 瘧疾에 대한 분류를 제시하였다.

春秋戰國 時代에 『素問·瘧論』은 寒熱發作的 순서와 寒熱의 偏盛의 다름에 근거하여 瘧疾을 寒瘧, 溫瘧, 瘧瘧의 3가지로 나누었다. 즉 寒瘧은 먼저 惡寒하고, 溫瘧은 먼저 發熱하고 瘧瘧은 惡寒이 없이 發熱만 하는 특징이 있다.<sup>61)</sup>

또한 『素問·刺瘧論』에서 瘧疾을 足三陽三陰瘧<sup>62)</sup>과 五臟瘧<sup>63)</sup>, 胃瘧<sup>64)</sup> 등으로 분류하고 있는데, 柳姬

痰有能成瘧者耶?”

56) 吳昆. 吳昆醫學全書醫方考. 중국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2006. p.46. “食瘧者, 食積成瘧也.”

57) 陳無擇. 陳無擇醫學全書三因極一病證方論. 중국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2006. p.81.

58) 劉純. 劉純醫學全書玉機微義. 중국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2006. p.158. “子和云, 內經既以夏傷於暑, 而爲瘧, 何世醫, 皆以脾寒治之, 用薑附硫黃之類, 甚者歸之崇怪, 良可笑耶! 又或因夏月飲食生冷之類, 指爲食瘧, 此又非也. 豈知內經之論, 則不然, 皆夏傷於暑, 遇秋風寒而後作也. 邪熱淺, 則連日, 邪熱深則間日, 並入於裏則寒, 並入於表則熱. 若此論, 則了不相干於脾也. 治平之時, 其民夷靜, 雖用砒石辰砂有毒之藥, 以熱治熱, 亦能取效, 擾攘之時, 其民勞苦, 內火與外火俱動, 以熱攻熱, 轉爲吐血瀉血瘡瘍嘔吐之疾, 豈與夷靜之人, 同治哉! 余嘗用張長沙, 汗吐下三法, 愈瘧病極多, 大忌錯作脾寒治之.”

59) 張介賓. (懸吐註釋)景岳全書. 서울. 法仁文化社. 2007. pp.273-274. “或問: 俗以瘧爲脾寒, 何也? 曰: 此亦有理. 蓋暑盛陽極, 人以伏陰在內, 脾因體倦, 腠理開發; 或因納涼於水閣木陰, 及泉水澡浴, 而微寒客於肌肉之

間, 經所謂遇夏氣淒滄之水寒迫之是也; 或勞役飢飽內傷而即病作, 故指肌肉屬脾, 發則惡寒戰慄, 乃謂之脾寒耳. 實由風寒暑濕之邪, 鬱於腠理, 夏時毛竅疏通而不爲病, 至秋氣收斂之際, 表邪不能發越, 故往來寒熱, 進退不已, 病勢如凌虐人之狀, 所以名瘧. 卽如四時傷寒, 十二經皆能爲病. 古方治法, 多兼內傷取效, 脾胃和而精氣通, 則陰陽和解, 此實非脾病也. 然古人稱瘧不得爲脾寒者, 正恐人專於溫脾之說, 不明造化之源, 而失病機氣宜之要故也.”

60) 李梴. 醫學入門(下). 서울. 南山堂. 1991. pp.1475-1476.

61) 洪元植. 精校黃帝內經素問. 서울. 東洋醫學研究院. 1985. p.131. “先傷於寒, 而後傷於風, 故先寒而後熱也, 病以時作, 名曰寒瘧. 帝曰, 先熱而後寒者, 何也. 岐伯曰, 此先傷於風, 而後傷於寒, 故先熱而後寒也, 亦以時作, 名曰溫瘧. 其但熱而不寒者, 陰氣先絕, 陽氣獨發, 則少氣煩冤, 手足熱而欲嘔, 名曰瘧瘧.”

62) 洪元植. 精校黃帝內經素問. 서울. 東洋醫學研究院. 1985. p.136.

63) 洪元植. 精校黃帝內經素問. 서울. 東洋醫學研究院. 1985. p.136.

64) 洪元植. 精校黃帝內經素問. 서울. 東洋醫學研究院. 1985.

我是 ‘변증시치’를 위한 구분이라고 하였는데<sup>65)</sup>, 실제로는 陳無擇은 『三因極一病證方論瘧病內所因證治』에서 病因을 기준으로 五臟瘧은 內因으로, 胃瘧, 食瘧은 不內外因으로 분류하였다.<sup>66)</sup>

『金匱要略瘧病脈證并治』에서 瘧疾의 名稱을 처음으로 언급하였고, 瘧疾의 脈象은 弦脈이 많이 나타난다고<sup>67)</sup> 하였다. 『內經』의 기초 위에서 白虎加桂枝湯이 溫瘧을 治療하고 蜀漆散으로 惡寒이 많은 牡瘧<sup>68)</sup>을 治療한다고<sup>69)</sup> 하였다.

晉隋唐 時代 『肘後備急方』에서는 瘧瘧의 명칭을, 『太平聖惠方』에서는 鬼瘧의 명칭을, 『聖濟總錄』에서는 瘧痢의 명칭을, 嚴用和의 『濟生方』에서 痰瘧의 名稱을 처음으로 언급하였다.<sup>70)</sup>

宋代에 陳無擇은 가장 먼저 疫瘧의 名稱을 제기하고 疫瘧의 特徵을 지적하였으니, 『三因極一病證方論瘧病不內外因證治』에서 “환자가 寒熱이 발생하고 한 해 중에 어른과 어린이가 그 증상이 서로 같으니, 간혹 유행하는 기운에 전염되어 寒熱로 변한 것을 疫瘧이라고 이름 한다.”<sup>71)</sup>고 하였다.

陳無擇은 또 脾寒의 名稱을 사용하였으니, 예를 들어 『三因極一病證方論瘧病內所因證治』에서 “草果飲, 治脾寒等瘧”<sup>72)</sup>이라고 하였다.

p. 136.

65) 柳疔我, 朴贊國. 瘧疾의 症狀과 機轉에 대한 文獻의 考察. 대한한의학회지. 1999. 12(1). p. 17.

66) 陳無擇. 陳無擇醫學全書三因極一病證方論. 중국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2006. pp. 80-81. “病者寒熱, 顏色蒼蒼然, 善太息, 如死狀, 以蓄怒傷肝, 氣鬱所致, 名曰肝瘧. 病者心煩, 欲飲清水, 反寒多, 不甚熱, 乍來乍去, 以喜傷心, 心氣耗散所致, 名曰心瘧. 病者寒多, 腹中熱痛, 或渴或不渴, 不熱不泄, 腸鳴汗出, 以思傷脾, 氣鬱凝結所致, 名曰脾瘧. 病者心寒, 寒甚則發熱, 熱間善驚, 如有所見, 以憂傷肺, 肺氣凝痰所致, 名曰肺瘧. 病者手足寒, 灑然, 腰脊痛, 發熱, 大便難, 目眩, 以失志傷腎, 名曰腎瘧. 以上五種瘧疾, 以臟氣不和, 鬱結凝飲所致, 治之各有方.”

67) 張仲景. 仲景全書金匱要略. 서울. 大星文化社. 1992. p. 361.

68) 牡瘧: 瘧疾 중 惡寒이 많은 것은 陰證이므로 마땅히 ‘牝瘧’으로 고쳐야 한다.

69) 張仲景. 仲景全書金匱要略. 서울. 大星文化社. 1992. p. 363.

70) 嚴用和. 嚴用和醫學全書重輯嚴氏濟生方. 중국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2006. p. 61.

71) 陳無擇. 陳無擇醫學全書三因極一病證方論. 중국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2006. p. 81.

『諸病源候論山瘧瘧候』에서 瘧瘧이 嶺南에서 多發하고 ‘瘧濕毒氣’로 말미암아 그 병이 일반적인 瘧疾보다 더 심하다고 하였다.<sup>73)</sup>

『玉機微義』에서 陳無擇의 『三因極一病證方論』에 근거하여 外因, 內因, 不內外因으로 구분하고 있는데, 外因은 風, 寒, 暑, 濕으로 인한 寒瘧, 溫瘧, 痺瘧, 濕瘧, 牝瘧 등의 5가지 예를 들고 있고, 內因은 『素問』에 따라 肝瘧, 心瘧, 脾瘧, 肺瘧, 腎瘧의 5가지 예를 들고 있고, 不內外因에는 疫瘧, 鬼瘧, 瘧瘧, 胃瘧(또는 食瘧), 勞瘧, 老瘧(또는 母瘧)의 6가지 예를 들고 있다.<sup>74)</sup>

朱橚은 『普濟方』의 「總論」에서 寒瘧, 溫瘧, 痺瘧, 濕瘧, 牡瘧을 外感瘧으로, 肝瘧, 心瘧, 脾瘧, 肺瘧, 腎瘧을 內傷瘧으로, 疫瘧, 鬼瘧, 胃瘧, 食瘧, 勞瘧, 老瘧, 母瘧의 不內外因으로 나누고,<sup>75)</sup> 『諸瘧門』에서 六經瘧(足厥陰肝瘧, 手少陰心瘧, 足太陰脾瘧, 手太陰肺瘧, 足少陰腎瘧, 足少陽膽瘧, 足太陽膀胱瘧, 足陽明胃瘧), 寒瘧, 溫瘧, 瘧發作無時<sup>76)</sup>, 山嵐瘴氣, 痺瘧,

72) 陳無擇. 陳無擇醫學全書三因極一病證方論. 중국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2006. p. 81. “草果飲 治脾寒等瘧”

73) 巢元方. 巢氏諸病源候論. 서울. 大星文化社. 1992. p. 98. “此病生於嶺南, 帶山瘧之氣. 其狀, 發寒熱, 休作有時, 皆由山溪源嶺瘧濕毒氣故也. 其病重於傷暑之瘧.”

74) 劉純. 劉純醫學全書玉機微義. 중국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2006. p. 157. “陳無擇云, 夫瘧備三因, 外則感四氣, 內則動七情飲食飽飽房室勞逸, 皆能致之, 經所謂夏傷暑, 秋感瘧者, 此則因時而發耳. 不可專以此論. 外所因證, 有寒瘧, 有溫瘧, 有痺瘧, 並同素問有濕瘧者, 寒熱身重, 骨節煩疼, 脹滿自汗, 善嘔, 因汗出復浴, 濕合皮膚, 及冒雨濕, 有牝瘧者, 寒多不熱, 但慘感振慄, 病以時作, 此則多感陰濕, 陽不能制陰也. 五種瘧疾, 以外感風寒暑濕, 與衛氣相並而成. 除痺瘧獨熱, 溫瘧先熱, 牝瘧無熱外, 諸瘧皆先寒後熱. 內所因證病者, 以蓄怒傷肝, 氣鬱所致, 名曰肝瘧; 以喜傷心, 心氣耗散所致, 名曰心瘧; 以思傷脾, 氣鬱凝結所致, 名曰脾瘧; 以憂傷肺, 肺氣凝痰所致, 名曰肺瘧; 以失志傷腎所致, 名曰腎瘧; 所致之證不同素問, 此五種瘧疾, 以感氣不和, 鬱結痰飲所致. 不內外因, 有疫瘧者, 一歲之間, 長幼相似; 有鬼瘧者, 夢寐不祥, 多生恐怖; 有瘧瘧者, 乍熱乍寒, 乍有乍無, 南方多病; 有胃瘧者, 飲食飽飽, 傷胃而成, 世謂食瘧; 有勞瘧者, 經年不瘧, 前後復發, 微勞不任; 亦有數年不瘧, 結成癥瘕, 在腹脅, 名曰老瘧, 亦曰母瘧. 以上諸證, 各有方治, 宜推而用之.”

75) 朱橚. 普濟方(『欽定四庫全書·子部·醫家類 21』中). 서울. 大星文化社. 1995. pp. 495-496.

76) 朱橚. 普濟方(『欽定四庫全書·子部·醫家類 21』中). 서울. 大星文化社. 1995. pp. 540-564.

間日瘧, 瘧瘧<sup>77)</sup>, 久瘧, 勞瘧, 鬼瘧, 瘧母, 瘧痢, 瘧病發渴, 瘧病發熱身黃小便不利<sup>78)</sup> 등을 설명하고 있다.

李梴이 瘧疾을 暴瘧, 溫瘧, 內傷瘧, 瘧瘧, 鬼瘧, 勞瘧, 痰瘧, 食瘧, 瘧母, 疫瘧 등으로 분류한 점으로 볼 때, 『醫學入門』의 瘧疾의 분류는 『普濟方總論』을 주로 따랐음을 알 수 있다.

한편 許浚은 『東醫寶鑑』에서 六經瘧과 風瘧, 寒瘧, 熱瘧, 濕瘧, 痰瘧, 食瘧, 勞瘧, 鬼瘧, 疫瘧, 瘧瘧, 瘧瘧 등으로 구분하고 있다.

『東醫寶鑑』의 이러한 분류는 太陽瘧, 陽明瘧, 少陽瘧, 三陰瘧을 각각 寒瘧, 熱瘧, 風瘧, 溫瘧과 관련 지은 『醫學入門』의 분류와 매우 차이가 있으며, 瘧瘧을 瘧疾 전체를 대표하는 病名으로 취급한 것이 아니라 『普濟方』을 따라 瘧疾 중 한 분류로 언급했다는 점이 餘他 醫書와 다르다.

#### (1) 暴瘧(三陽瘧)과 溫瘧(三陰瘧)의 구분

李梴은 가장 먼저 瘧疾에 대해 內傷外感을 陰陽으로 크게 나누고, 다시 風暑와 寒濕의 陰陽으로 나누고, 또 다시 三陽經과 三陰經의 六經으로 細分할 것을 주장하였다.

外感 중 陽瘧은 三陽瘧(太陽瘧, 陽明瘧, 少陽瘧)으로 細分되는데 外感의 風邪, 暑邪로 인해 발생하며<sup>79)</sup> 氣分에 병이 들어 春夏(處暑 前)에 갑자기 발생하며 ‘暴瘧’이라고 부르며 病勢가 얕은 데 반해<sup>80)</sup>, 外感 중 陰瘧은 三陰瘧(太陰瘧, 少陰瘧, 厥陰瘧)으로 細分되는데 內傷의 正氣虛로 인해 발생하며<sup>81)</sup> 腎과 骨髓 등의 血分에 병이 잠복해 있다가 그해 겨울을 지나 다음해 夏秋(處暑 後)에 발생하며 ‘溫瘧’이라고 부르며 邪氣가 臟으로부터 腑로 떠오

르기에 病勢가 깊다고<sup>82)</sup> 하였다.

#### ① 三陽瘧과 六氣의 배속

李梴은 특히 三陽瘧을 六氣와 연관 지었는데, 寒瘧은 太陽瘧으로, 熱瘧은 陽明瘧으로, 風瘧은 少陽瘧으로 배속하였다.

劉河間은 『素問病機氣宜保命集』에서 “三陽에 적중하는 경우가 있고 三陰에 적중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 證狀이 각각 다른 것이 傷寒과 비슷하다. 太陽經에 있으면 寒瘧이라고 하니 치료는 發汗하는 경우가 많고, …… 陰經에 있으면 太陰, 少陰, 厥陰의 三經을 구분하지 않고 모두 濕瘧이라고 부르니 마땅히 太陰經을 따라 논한다. …… 西方에 사는 자는 毒藥으로 치료하는 것이 마땅하다.”<sup>83)</sup>라고 한 바 있다.

李東垣은 『活法機要』에서 “太陽經에 있는 것을 風瘧이라고 하니 치료는 흔히 發汗하고, 陽明經에 있는 것을 熱瘧이라고 하니 치료는 흔히 攻下하고, 少陽經에 있는 것을 風熱瘧이라고 하니 치료는 흔히 和解한다. 陰經에 있는 것은 三經을 구분하지 않고 모두 濕瘧이라고 하니 마땅히 太陰經을 따라 논한다.”<sup>84)</sup>고 하였다.

朱丹溪는 『丹溪治法心要』에서 “東垣이 이르되 ‘寒瘧은 太陽에 속하니 發汗이 마땅하고, 熱瘧은 陽明에 속하니 攻下가 마땅하고, 寒熱瘧은 少陽에 속하니 和解가 마땅하나 三陰은 곧 나누지 않고 합하여 ‘溫瘧’이 된다.’고 하였으니, 이 말이 매우 옳지만 三陰經의 설명은 분명하지 않다.”<sup>85)</sup>고 하였다.

劉純은 『玉機微義』에서 劉河間의 學說에 근거하여 부연하여 설명하였다.<sup>86)</sup>

77) 朱棣. 普濟方(『欽定四庫全書·子部·醫家類 21』中). 서울. 大星文化社. 1995. pp.565-592.

78) 朱棣. 普濟方(『欽定四庫全書·子部·醫家類 21』中). 서울. 大星文化社. 1995. pp.593-629.

79) 李梴. 醫學入門(下). 서울. 南山堂. 1991. pp.1475-1476. “陽爲外感邪氣, 其間, 陽爲風暑有汗; 陰爲寒濕, 無汗.”

80) 李梴. 醫學入門(下). 서울. 南山堂. 1991. p.1477. “已上, 三陽氣分受病, 發在處暑前者, 俱謂之暴瘧, 乃傷之淺者.”

81) 李梴. 醫學入門(下). 서울. 南山堂. 1991. pp.1475-1476. “陰爲內傷正氣虛, 其間, 陽爲氣虛, 陰爲血虛, 陽爲升, 發在春夏, 陰爲降, 發在秋冬.”

82) 李梴. 醫學入門(下). 서울. 南山堂. 1991. pp.1477-1478. “已上, 三陰血分受病, 發在處暑後者, 俱謂之溫瘧, 乃隔冬, 感溫氣, 藏於腎與骨髓, 至夏秋, 重感新邪觸發, 自臟而達之腑, 乃傷之重者.”

83) 劉河間. 劉河間醫學全書素問病機氣宜保命集. 중국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2006. pp.141-142.

84) 李東垣. 李東垣醫學全書活法機要. 중국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2006. p.146.

85) 朱震亨. 朱丹溪醫學全書丹溪治法心要. 중국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2006. pp.345-346.

86) 劉純. 劉純醫學全書玉機微義. 중국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2006. p.158. “在陰經, 則不分三經, 總謂之濕瘧, 當從太陰經論之, 發在處暑後 冬至前, 此乃傷之重者遠而爲瘧,



이로써 『醫學入門』의 六經分類는 『素問刺瘧論』의 六經瘧의 分類를 따랐고, 暴瘧과 溫瘧의 구분은 『玉機微義』의 暴瘧과 濕瘧(또는 瘧)로 구분을 따른 것이지만 실제로는 『素問病機氣宜保命集』을 따른 것이며, 三陰經의 瘧疾의 명칭으로 사용된 ‘濕瘧’은 『丹溪治法心要』를 따라 ‘溫瘧’으로 바꾸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丹溪治法心要』에 三陽瘧을 다시 寒瘧은 太陽에, 熱瘧은 陽明에, 風瘧은 少陽에 속한다는 설명은 劉河間이 먼저 주장하였고 李東垣이 따랐음을 알 수 있다.

## ② 少陰瘧과 厥陰瘧이 發作하는 날짜

少陰瘧에 대해 “子午卯酉의 四正日に 發作한다.”<sup>87)</sup>고 하고, 厥陰瘧에 대해 “厥陰瘧은 寅申巳亥의 四旁日に 발작한다.”<sup>88)</sup>고 하였다.

『丹溪治法心要』에서 “다만 三陰經에 대한 설명은 분명하지 않다. 子午卯酉日に 發作하면 少陰瘧이고, 寅申巳亥日에는 厥陰瘧이고, 辰戌丑未日에는 太陰瘧이다.”<sup>89)</sup>라고 하였다.

이로써 『醫學入門』에서 少陰瘧은 子午卯酉日に 發作하고 厥陰瘧은 寅申巳亥日に 發作한다는 내용은 『丹溪治法心要』을 인용한 것인데, 太陰瘧은 辰戌丑未日に 발작한다는 내용은 생략했음을 알 수 있다.

## (2) 內傷瘧

『醫學入門』에서 “內傷瘧은 모두 음식을 먹지 못 하되, 오직 七情인 경우 음식을 잘 먹고 땀이 많다. 五臟의 기운이 조화롭지 못한데다가 약한 外邪를 받아서 痰을 동하게 한 것이다.”<sup>90)</sup>고 하였다.

『三因極一病證方論·卷六』에서 “환자가 寒熱이 있고 顔色이 푸르스름하고 한숨을 잘 쉬어 죽는 사람의 모양과 같으니, 꾸준히 성내어 肝을 상하여 氣鬱로 瘧疾에 이르는 것을 ‘肝瘧’이라 이름 한다. ……

名曰心瘧. …… 名曰脾瘧. …… 名曰肺瘧. …… 名曰腎瘧. 이상의 다섯 가지 瘧疾은 臟氣가 不和하여 痰涎과 水飮이 鬱結하여 생긴 것이다. 치료할 때 각각 處方이 있다.”<sup>91)</sup>고 하였다.

이로써 ‘內傷瘧’은 비록 『醫學入門』에서만 사용된 독특한 분류 명칭이지만, 『三因極一病證方論』에서 언급한 ‘瘧病內所因’의 내용을 따른 것임을 알 수 있으며, 또 內傷 中 飮食으로 인한 瘧疾은 ‘食瘧’으로 따로 분류하고 있으므로 『醫學入門』에서 말하는 ‘內傷瘧’이란 七情에 의한 瘧疾만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 (3) 瘧瘧

瘧瘧에 대해 『醫學入門』에서 “산이나 시내에서 毒이 熏蒸하여 사람을 미혹하고 고단하게 하고 發狂하거나 혹 병어리가 되게 하며 잠깐사이에 惡寒하고 잠깐 사이에 發熱하고 증상이 잠시 있는 듯 하다가 잠시 없는 듯 하니 ……”<sup>92)</sup>라고 하였다.

金·元代에 『仁齋直指』에서 “瘧瘧은 …… 그 증상이 피가 上焦를 타므로 病이 오려고 할 때에 사람의 정신이 미혹하게 하고, 심하면 四肢가 躁動하고 미치고 잊게 한다. 또한 병어리가 되어 능히 말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sup>93)</sup>고 하였다.

明代에 『普濟方』에서 “산의 아지랑이, 연기, 안개, 땀, 살모사와 鬱蒸한 毒氣가 더욱 심하면 이때 풍토병이 크게 생긴다. 노인과 젊은이를 논하지 않고 혹은 굶주리거나 배고픔이 지나쳐서 상하거나 혹은 榮衛가 虛弱하거나 혹은 답답한 안개를 맞거나 혹은 시냇물을 건너다가 단지 이런 기운을 호흡하기만 해도 다 풍토병에 걸린다. 그 증상이 머리가 아프고 몸이 아프고 胸膈이 괴롭고 답답하고 寒熱이 往來하고 기침할 때 痰이 많고 전혀 음식이 생각나지 않고 갈증이 생겨서 물이 당기고, 혹은 黃疸과 黃腫脹이 생기고 눈썹과 수염이 떨어지니, 이는 다 毒이나 전염병이 鬱蒸한 所致이다”<sup>94)</sup>고 하였다.

瘧者老也. 居西方, 宜毒藥療之, 按此分風暑所傷, 有陰陽淺深之異, 發前人所未論也.”

87) 李梴, 『醫學入門』(下). 서울. 南山堂. 1991. p.1477.

88) 李梴, 『醫學入門』(下). 서울. 南山堂. 1991. p.1477.

89) 朱震亨, 『丹溪醫學全書丹溪治法心要』. 중국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2006. pp.345-346.

90) 李梴, 『醫學入門』(下). 서울. 南山堂. 1991. p.1479.

91) 陳無擇, 『陳無擇醫學全書三因極一病證方論』. 중국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2006. pp.80-81.

92) 李梴, 『醫學入門』(下). 서울. 南山堂. 1991. p.1478.

93) 楊士瀛, 『仁齋直指』(『欽定四庫全書·子部·醫家類 12』中). 서울. 大星文化社. 1995. p.268.

『玉機微義』에 “瘧瘧이 있는 자는 잠깐 發熱하다가 잠깐 惡寒하고, 잠깐 있다가 잠깐 없어지는데 南方에 그 病이 많다.”<sup>95)</sup>고 하여 구체적인 症狀을 기록하고 있다.

『景岳全書·瘧氣』에서 『指迷方·瘧氣瘧論』을 인용하여 南方의 瘧瘧은 “가벼운 경우는 寒熱往來하여 바로 瘧瘧과 같은 것을 冷瘧이라고 하고, 위중한 경우는 쌓인 熱이 깊어서 밤낮으로 젓불 속에 누워 있는 것과 같은 것을 熱瘧이라고 하고, 가장 위중한 경우는 한번 병들면 목소리를 잃어서 그 까닭을 알 수가 없는 것을 嘔瘧이라고 한다.”<sup>96)</sup>고 하였으니 臨床症狀의 다름에 근거하여 瘧疾을 정확히 分類하였다.

『症因脈治·卷四』에서 瘧瘧에 대해 비교적 잘 논하였는데, 그 病機가 “瘧氣가 사람의 臟腑로 들어가서 血이 上焦에 모여 敗血이 心竅에 瘀滯되고 毒涎이 肝脾에 모이면 瘧毒瘧疾의 증상이 생긴다.”<sup>97)</sup>고 인식하였다.

이로써 『醫學入門』의 瘧瘧의 症狀은 『仁齋直指』, 『普濟方』, 『玉機微義』 등의 내용을 간추려서 인용한 것임을 알 수 있다.

#### (4) 鬼瘧

鬼瘧에 대해 『醫學入門』에서 “鬼瘧은 尸疰나 客忤에 갑자기 감추되어 발생하니, 惡寒發熱이 날마다 생기고, 꿈과 잠자리가 좋지 못하고(不詳) 공포가 잘 생기고, 말과 행동이 이상하다.”<sup>98)</sup>고 하였다.

『太平聖惠方·卷五十二』에 “鬼瘧이란 것은 邪氣로 인해 생기는 것이다. 그 발작에 일정한 때가 없어서 혹은 하루에 2~3번 寒熱하거나 혹은 이틀에 한번 발작하고, 心神이 황홀하고, 기빠하고 성념이 일정

하지 않고, 惡寒하면 달달 떠는 것이 쉬지 않고, 發熱하면 躁動하고 목마름이 그치지 않아서, 혹은 차도가 있어도 다시 발작하고, 혹은 덜하다가 다시 심해져서, 오래토록 낫지 않고, 세월을 질질 끌어서 쇠약하고 마르게 된다.”<sup>99)</sup>고 하였다.

『三因極一病證方論·卷六』에 “환자가 寒熱이 날마다 생기고 꿈과 잠자리가 좋지 못하고 공포가 잘 생기는 것을 鬼瘧이라 이름 한다. 禁忌나 푸닥거리 등의 治法을 사용함이 마땅하다.”라 하였다.

『普濟方』에서 “무릇 鬼瘧이란 것은 外邪가 틈탈 때 사람의 眞氣가 속에서 虛하여 神을 견고하게 지키지 못하면 鬼邪가 틈을 타서 들어온 것이다. 그러므로 恍惚하고 기빠하다가 성내고, 그 發作이 일정한 때가 없어서 혹은 하루에 2~3번 발작하거나 혹은 이틀에 한번 발작하고, 惡寒하면 下體를 떨고 發熱하면 입이 마르고 갈증 나는 것이 그치지 않으니, 혹은 나아가서 재발하지 않거나 혹은 병이 덜하다가 다시 심해져서 오래토록 낫지 않고 세월만 끌어서 마치 귀신이 잡고 있는 것과 같다.”<sup>100)</sup>고 하였다.

그러나 劉純은 『玉機微義·瘧非脾寒及鬼食辨』에서 張子和의 견해에 따라 瘧疾이 飲食으로 인하여 발생한다는 學說에 반대하였다.<sup>101)</sup>

이로써 『醫學入門』의 鬼瘧의 症狀은 『太平聖惠方』, 『普濟方』의 내용을 간추려서 인용하고, 특히 ‘鬼瘧은 없다’는 『玉機微義』의 견해는 배제하였음을 알 수 있다.

#### (5) 勞瘧

勞瘧에 대해 『醫學入門』은 “勞瘧은 미미하게 惡寒發熱하니 惡寒 중에 發熱이 있고 發熱 중에 惡寒이 있어서 가장 調理하기가 어렵다. 혹은 반 개월 또는 열흘이 지나 조금 과로하면 다시 발생하여 오래토록 낫지 않는 것이다.”<sup>102)</sup>고 하였다.

94) 朱棣. 普濟方(『欽定四庫全書·子部·醫家類 21』中). 서울. 大星文化社. 1995. p.566.

95) 劉純. 劉純醫學全書玉機微義. 중국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2006. pp.70-71. “有瘧瘧者, 乍熱乍寒, 乍有乍無, 南方多病”

96) 張介賓. (懸吐註釋)景岳全書. 서울. 法仁文化社. 2007. p.280.

97) 秦景明. 症因脈治. 臺北. 旋風出版社. 발행연도 미상. p.447.

98) 李梴. 醫學入門(下). 서울. 南山堂. 1991. p.1478.

99) 王懷隱, 陳昭遇 等 著, 裴沛然 編. 太平聖惠方·中華醫典 CD(upgrade edition). 北京. 湖南電子音像出版社. 2006.

100) 朱棣. 普濟方(『欽定四庫全書·子部·醫家類 21』中). 서울. 大星文化社. 1995. p.612.

101) 劉純. 劉純醫學全書玉機微義. 중국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2006. p.158.

102) 李梴. 醫學入門(下). 서울. 南山堂. 1991. p.1479.

勞瘧은 瘧이 오래도록 낫지 않아 表裏가 모두 虛한데 조금만 과로하면 재발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金匱要略·瘧病脈證並治』에 처음 나타나있다.

『諸病源候論勞瘧候』에서 “무릇 瘧疾이 오래되어서 낫지 않는 것은 表裏가 모두 虛하여 客邪가 흠어지지 않고 眞氣가 회복되지 않으므로 瘧疾이 비록 잠시 차도가 있더라도 조금이라도 과로하면 곧 재발한다.”<sup>103)</sup>라고 하였으니 勞瘧의 臨床特徵이 精氣가 이미 虛한데 邪氣가 다하지 않아서 過勞하면 곧 발생함을 분명히 지적하였다.

明代에 『普濟方』에서 “勞瘧이란 것은 오래된 瘧疾이 낫지 않아 氣血이 오래도록 虛하기 때문에 病이 비록 간헐적이라도 勞動하면 발작하므로 勞瘧이라고 이름 한다. 邪氣가 나날이 깊어지고 眞氣가 더욱 소모되어 表裏가 이미 虛하므로 음식을 적게 먹고 살이 마르고 얼굴빛이 초췌하고 힘이 적어지지만 寒熱往來는 전과 같다.”<sup>104)</sup>고 하였다.

이로써 『醫學入門』의 勞瘧의 症狀은 『金匱要略』, 『諸病源候論』, 『普濟方』의 내용을 간추려서 인용한 것임을 알 수 있다.

## (6) 痰瘧

痰瘧에 대해 『醫學入門』은 “痰瘧은 外感이나 內傷으로 津液이 멎쳐서 痰을 이룬 것이다. 그 증상이 열이 많이 나고 머리가 아프고 살이 뛰듯이 떨리고 음식을 토하고 거품을 게우며 심하면 정신이 어지러워서 넘어진다.”<sup>105)</sup>고 하여 瘧疾의 한 分類로서 인정하고 있다.

『普濟方』에서 “痰瘧의 症狀은 胸中이 편하지 못하고 머리가 아프고 추워서 떠느라고 멀지 못하고 먹으면 곧장 구토하고 惡寒이 없으면 內外가 모두 열이 나는데 惡寒과 發熱이 교대로 발작하고, 心下가 뻗쳐서 그득하고 痰이 胸中에 쌓이고, 氣가 거슬러서 속이 답답하고 구토하므로 ‘痰瘧’이라고 이른다. 痰瘧은 發作에 일정한 때가 있고, 發熱이 많고

惡寒이 적고, 頭痛이 있고 額角과 가슴 앞쪽의 살이 뛰듯이 움직이고, 음식이 막 입에 들어가자마자 곧 토하고, 얼굴색이 붉은 기운을 띠는 것을 치료하는 것이다. 무릇 痰實로 瘧疾이 생긴 자는 환자의 胸膈에 먼저 停滯되어 있는 結實이 있다가 瘧疾에 감축된 것으로 인해 환자의 心下가 뻗치고 그득하고 氣가 거스르고 속이 답답하고 구토하는 것을 말한다.”<sup>106)</sup>고 하였다.

이로써 『醫學入門』의 痰瘧의 症狀은 『普濟方』의 내용을 간추려서 인용한 것임을 알 수 있다.

## (7) 食瘧

食瘧에 대해 『醫學入門』에서 “食瘧은 飲食으로 痰火가 쌓여서 발생하니, 惡寒이 그치면 다시 發熱하고, 發熱이 그치면 다시 惡寒하고, 惡寒發熱이 교대로 다투고, 굶주림으로 고통스러워도 먹지 못하고, 먹으면 痰을 토하고, 가슴이 답답하고 배가 불러 오르는 자는 ……”<sup>107)</sup>이라고 하였다.

食瘧에 대해 『三因極一病證方論卷六』에서 “환자가 寒熱往來하고 잘 굶어도 능히 먹지 못하고, 다 먹고 나서 땅기고 그득하고, 뱃속이 급하고 꼬이는 듯이 아프고 병이 날마다 발생하는 것을 胃瘧이라고 이름 한다. 六腑에는 瘧疾이 없되 오직 胃에만 있는 까닭은 대개 飲食으로 굶거나 배불러서 胃氣를 상하여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세상에서 食瘧이라고 부르는 것은 혹 瘧疾로 인해 음식을 조절하지 못하여 이 胃瘧의 증상으로 변한 것이다.”<sup>108)</sup>라고 하여, 食瘧을 胃瘧과 완전히 동일시하지는 않았음을 알 수 있다.

한편 앞서 『玉機微義瘧非脾寒及鬼瘧辨』에서 張子和를 따라서 食瘧의 분류에 반대하였다<sup>109)</sup>고 언급

103) 巢元方. 巢氏諸病源候論. 서울. 大星文化社. 1992. p.97.

104) 朱棣. 普濟方(『欽定四庫全書·子部·醫家類 21』中). 서울. 大星文化社. 1995. p.604.

105) 李梴. 醫學入門(下). 서울. 南山堂. 1991. p.1479.

106) 朱棣. 普濟方(『欽定四庫全書·子部·醫家類 21』中). 서울. 大星文化社. 1995. p.586.

107) 李梴. 醫學入門(下). 서울. 南山堂. 1991. p.1480.

108) 陳無擇. 陳無擇醫學全書三因極一病證方論. 중국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2006. p.81.

109) 劉純. 劉純醫學全書玉機微義. 중국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2006. p.158. “按此云, 無脾寒及鬼瘧, 皆是得之於暑, 又謂平治與擾攘之時, 治瘧不同, 皆確論也. 然食瘧則世亦有之者. 然觀其用藥, 以白虎加人參湯, 小柴胡, 五苓桂苓甘露之類, 則調之也. 甚者, 臟用承氣大紫胡下之, 更不愈, 以常

한 바가 있다.

明代에 『普濟方』에서 “病者寒, 善饑而不能實, 已之滿, 腹急病痛, 病以日作, 名曰胃瘧. 六腑無瘧, 唯胃有者, 蓋飲食饑飽所傷胃氣而成. 世謂之食瘧, 或因諸瘧飲食不節, 變爲此證也.”<sup>110)</sup>라고 하여 『三因極一病證方論卷六』의 내용을 그대로 인용하되, ‘不能食, 食已支滿’을 ‘不能實, 已之滿’으로 바꾸어 기록한 것은 해석이 매끄럽지 않는 것으로 보아 잘못 기록한 것으로 볼 수 있고, ‘腹急病痛’을 ‘腹急病痛’으로 바꾸어 기록한 것은 비록 해석에 문제가 없으나 역시 인용할 때에 잘못 기록한 것으로 볼 수 있다.

『普濟方』에서 胃瘧과 食瘧을 동일시하였기 때문에 食瘧의 증상을 언급하지 않고 다만 足陽明胃瘧에 대해 “무릇 足陽明胃瘧이 經脈에 있으면 사람으로 하여금 먼저 惡寒으로 떨게 하고, 惡寒이 심한 뒤에 發熱하고, 열이 내리면 땀이 나고, 땀이 나면 햇빛, 달빛, 火氣를 보면 상쾌하다 …… 굶주리기를 잘 하지만 먹지 못하고, 먹으면 속이 뻘치고 그득하고 배가 크게 붓는다.”<sup>111)</sup>고 하였다.

이로써 『醫學入門』의 食瘧의 症狀는 비록 『三因極一病證方論』의 내용을 간추려서 인용하였지만, 『三因極一病證方論』에서 처음 제시한 ‘脾寒說’과, 그와 반대로 『玉機微義』에서 제시한 ‘瘧疾이 脾寒으로 생기지 않는다.’는 病機에 대한 의견은 모두 채용하지 않았다고 볼 수 있다.

### (8) 瘧母

瘧母에 대해 『醫學入門』에서 “여러 瘧疾이 여러 해를 넘겨도 낫지 않는 것을 ‘老瘧’이라고 부른다. 반드시 痰水, 瘀血이 있어서 痞塊를 형성하여 뱃속이나 옆구리에 감추어져 있다가 부풀어 오르면서 아프게 되니 이것이 ‘瘧母’이다.”<sup>112)</sup>고 하였다.

瘧母는 張仲景의 『金匱要略』에서 “瘧疾을 앓아 한 달에 한번 발작하면 보름에 낮게 된다. 만약 낮지 않으면 한 달이 되면 다 풀린다. 만약 낮지 않으면 무엇이라고 부르는가? 스승이 가라사대, 이는 맺혀서 癥瘕가 된 것이니 瘧母라고 이름 한다. 급히 치료해야 하니, 鼈甲煎丸이 마땅하다.”<sup>113)</sup>고 한 데에서 처음 나타나 있다.

『三因極一病證方論卷六』에서 “또한 여러 해도록 낫지 않고 온갖 약으로도 瘧疾이 끊어지지 않아서 덩어리가 맺혀져 뱃속과 옆구리에 있는 것을 ‘老瘧’이라고 이름하며 또한 ‘母瘧’이라고도 한다.”<sup>114)</sup>고 하였다.

明代 朱橚은 『普濟方』에서 “무릇 瘧母란 것은 瘧疾을 앓아 낫지 않아서 癥瘕가 맺히는 것이 이것이다.”<sup>115)</sup>고 하였다.

이로써 『醫學入門』의 食瘧의 症狀는 『三因極一病證方論』의 내용을 간추려서 인용한 것임을 알 수 있다.

### (9) 疫瘧

疫瘧에 대해 『醫學入門』에서 “疫瘧은 한 지역에 어린이나 어린이가 그 증상이 서로 비슷하다. 반드시 運氣를 참고해야 하여 寒熱에 따라 用藥해야 한다.”<sup>116)</sup>고 하였다.

『三因極一病證方論卷六』에서 “환자가 寒熱往來가 발작하고 한 해 중에 어린이나 어린이가 증상이 서로 같으니, 혹시 유행하는 기운에 전염되어 寒熱往來로 변한 것을 疫瘧이라고 이름 한다. 그 해의 運氣를 미루어 치료한다.”<sup>117)</sup>고 하였다.

明代 朱橚은 『普濟方』에서 『三因極一病證方論』을 그대로 인용하되, ‘長幼相若’을 ‘長幼強弱’으로 잘못

pp.1480-1481.

113) 張仲景. 仲景全書金匱要略. 서울. 大星文化社. 1992. p.361.

114) 陳無擇. 陳無擇醫學全書三因極一病證方論. 중국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2006. pp.81-82

115) 朱橚. 普濟方(『欽定四庫全書·子部·醫家類 21』中). 서울. 大星文化社. 1995. p.617.

116) 李梴. 醫學入門(下). 서울. 南山堂. 1991. p.1478.

117) 陳無擇. 陳無擇醫學全書三因極一病證方論. 중국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2006. p.81.

기록하였다.<sup>118)</sup>

이로써 『醫學入門』의 疫瘧의 症狀은 『三因極一病證方論』의 내용을 그대로 인용한 것임을 알 수 있다.

#### (10) 瘧痢

『醫學入門』에서 “瘧疾이 먼저 생기고 나서 뒤에痢疾이 생기는 경우가 있다.”고<sup>119)</sup> 하였는데, 이를 『聖濟總錄·卷第三十七·瘧病門』에서 처음으로 瘧痢라고 부르고<sup>120)</sup>, 『普濟方』의 내용을 그대로 인용하되,<sup>121)</sup> ‘膿’자를 ‘濃’자로 잘못 표기하였다.

이로써 『醫學入門』의 瘧痢의 내용은 『聖濟總錄』의 영향을 받은 것임을 알 수 있다.

이상의 내용을 張伯與가 『中醫內科學』에서 언급한 瘧疾의 發展史와<sup>122)</sup> 비교하여 간략히 나타내면 표 1과 같다.

### 3. 瘧疾의 治法과 治療

『醫學入門』에서 瘧疾의 治法을 크게 外感과 內傷으로 나누어 기술하고 있는데, 外感의 瘧瘧은 體質

時代	著書	特徵
春秋 戰國	『素問』	▶ 寒瘧, 溫瘧, 痺瘧의 명칭을 최초로 기록 ▶ 瘧氣, 六經瘧 → 外因說, 外感說로 발전 ▶ 五臟瘧, 胃瘧 → 內因說, 內傷說(內傷瘧)로 발전 ▶ 瘧疾의 鍼刺 治療
	『神農本草經』	▶ 恒山(常山)의 효능을 최초로 기록 ▶ 蜀漆의 효능을 최초로 기록
秦漢	『金匱要略』	▶ 瘧疾의 명칭을 최초로 기록 ▶ 勞瘧의 명칭을 최초로 기록 ▶ 瘧母의 명칭을 최초로 기록 ▶ 牡瘧(牝瘧)의 명칭을 최초로 기록
晉隋唐	『肘後備急方』	▶ 瘧瘧의 명칭을 최초로 기록 ▶ 菁蒿를 사용 ▶ 砒霜을 사용
	『諸病源候論』	▶ ‘間日瘧’의 명칭을 최초로 기록
	『千金要方』	▶ 馬鞭草를 사용
宋	『太平聖惠方』	▶ 鬼瘧의 명칭을 최초로 기록
	『聖濟總錄』	▶ 瘧痢의 명칭을 최초로 기록 ▶ 瘧疾의 三因說(內因, 外因, 不內外因)을 제기
	『三因極一病證方論』	▶ 食瘧의 명칭을 최초로 기록 ▶ ‘脾寒’說을 최초로 제기 ▶ 胃瘧과 食瘧을 구분 ▶ 疫瘧의 명칭을 최초로 기록

118) 朱棣. 普濟方(『欽定四庫全書·子部·醫家類 21』中). 서울. 大星文化社. 1995. p.496. “病者, 發寒熱, 一歲之間, 長幼強弱, 或染時行, 變成寒熱, 名曰瘧瘧. 以歲運推之.”

119) 李梴. 醫學入門(下). 서울. 南山堂. 1991. p.1481.

120) 趙佶. 聖濟總錄. 上海. 人民衛生出版社. 1992. p.736.

“論曰 瘧痢者, 瘧久不差, 寒熱邪氣, 內傳腸胃也. 其病寒熱

往來, 利下膿血, 赤白相雜, 腸中切痛, 隨其陰陽而治之.”

121) 朱棣. 普濟方(『欽定四庫全書·子部·醫家類 21』中). 서울. 大星文化社. 1995. p.620. “夫瘧痢者, 瘧久不差, 寒熱邪氣, 內傳腸胃也. 其病寒熱往來, 痢下膿血, 赤白相雜, 腸中切痛, 隨其陰陽而治之.”

122) 張伯與 主編. 中醫內科學.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96.

金·元	『濟生方』	▶痰癘의 명칭을 최초로 기록 ▶‘無痰不成癘’說을 제기
	『儒門事親』	▶癘疾의 三因說에 반대 ▶‘無痰不成癘’說(痰癘)에 반대 ▶‘食積成癘’說(食癘)에 반대
	『脈因證治』 『丹溪心法』	▶癘母의 전염성을 제기 ▶砒霜의 폐단을 지적
明代	『玉機微義』	▶食癘의 病因分類에 반대 ▶鬼癘의 病因分類에 반대 ▶脾寒의 病因에 반대
	『普濟方』	▶『醫學入門』의 癘疾 症候分類에 전적으로 영향
	『醫學入門』	▶‘痰癘’의 病因分類에 찬성
		▶‘食癘’의 病因分類에 찬성
		▶內傷癘의 명칭을 七情癘의 의미로 제한
		▶胃癘과 食癘을 동일시함 ▶‘脾寒’說은 언급하지 않음 ▶구체적인 治法을 처음 제시 ▶常山을 사용
『醫方考』	▶‘食積成癘’說을 완성	
『萬病回春』	▶개략적인 治法을 제시	
清代	『景岳全書』	▶‘痰癘’의 病因分類에 반대 ▶‘食癘’의 病因分類에 반대
	『癘疾論』	▶‘三陰癘’의 명칭을 三日癘의 뜻으로 처음으로 사용

표 1. 癘疾의 發展史로 본 『醫學入門』의 繼承과 成果

이 건강할 때 汗, 吐, 下, 和 등을 사용하고<sup>123)</sup>, 內傷의 癘疾의 治法으로 ‘清痰 斂汗, 補胃脾’<sup>124)</sup>라고 하고, 또 汗의 유무에 따라 治法을 달리한다고 주장하였다.<sup>125)</sup>

癘疾의 新舊에 따라 조금 오래되면 補法과 發汗을 兼하고, 더 오래된 경우는 補法을 위주로 하고 吐法 등의 瀉法을 금하였다.<sup>126)</sup>

### (1) 外感癘

pp.491-493.

123) 李樅. 醫學入門(下). 서울. 南山堂. 1991. p.1478. “詳分寒熱, 汗且和, …… 或吐或下, 須體盛.”

124) 李樅. 醫學入門(下). 서울. 南山堂. 1991. p.1480. “清痰斂汗 補胃脾”

125) 李樅. 醫學入門(下). 서울. 南山堂. 1991. p.1480. “大抵, 有汗, 要止汗, 以補其虛; 無汗, 要發汗, 以散其邪.”

126) 李樅. 醫學入門(下). 서울. 南山堂. 1991. p.1480. “稍久者, 一補一發也. 久虛, 補中益氣湯, 加山查 麥芽, 扶脾自止, 極惡吐截.”

『醫學入門』에서 外感癘에 대해 有汗, 無汗에 따라 治法이 다름을 발명하여 “陽癘으로 汗이 없으면 柴胡, 蒼朮, 葛根, 麻黃 등을 더하고, 陰癘 중에 汗이 없으면 柴胡, 升麻, 川芎을 더하고 汗이 있으면 白朮, 烏梅를 더하여 和解한다.”<sup>127)</sup>고 하였는데, 비슷한 시기의 『萬病回春』에서 “汗이 없으면 반드시 汗이 있도록 해야 하니 邪氣를 흠는 것을 위주로 하고, 汗이 있으면 반드시 汗이 없도록 해야 하니 正氣를 위주로 한다.”<sup>128)</sup>고 한 서술과 비교해 볼 때 상당히 구체적이다.

### (2) 內傷癘

『醫學入門』에서 外感癘뿐만 아니라 또 內傷癘에 대해 有汗, 無汗에 따라 治法이 다름을 발명하여 “內傷癘은 모두 汗이 많으니, 陽癘은 人蔘, 白朮, 黃

127) 李樅. 醫學入門(下). 서울. 南山堂. 1991. p.1478.

128) 龔廷賢. 萬病回春. 서울. 法仁文化社. 2007. p.297.

芪로 땀을 거두고, 陰瘧은 當歸, 熟地黃, 知母, 黃柏, 芍藥으로 땀을 거둔다.”<sup>129)</sup>고 하였는데, 비슷한 시기의 『萬病回春』에서 “땀이 없으면 반드시 땀이 있도록 해야 하니 邪氣를 흘리는 것을 위주로 하고, 땀이 있으면 반드시 땀이 없도록 해야 하니 正氣를 위주로 한다.”<sup>130)</sup>고 한 서술과 비교해 볼 때 상당히 구체적이다.

이로써 『萬病回春』은 外感瘧과 內傷瘧으로만 구분하여 땀의 유무에 따라 각각 發汗法, 止汗法으로 간략히 제시한데 반해, 『醫學入門』은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外感瘧의 치료에 다시 땀의 有無에 따라 구분하여 止汗 또는 發汗하는 약물을 제시하였을 뿐

만 아니라, 內傷瘧의 치료에도 다시 땀의 有無에 따라 구분하여 止汗 또는 發汗하는 약물을 구분하여 제시하였음을 알 수 있다.

『醫學入門』에서 瘧疾의 치료에 사용한 處方의 淵源과 특징을 조사한 결과를 정리하면 표 2와 같다.

특히 『醫學入門』에서 그 이전의 分類와 處方을 단순히 인용한 경우는 음영으로 표시하고, 『醫學入門』에서 처음 만들어서 사용한 處方과 비록 처음 만들지는 않았으나 해당 증후에 처음 응용한 處方은 **기울인 붉은 글씨**로 표시하였다.

分類	『醫學入門』	處方의 淵源		특징
		書籍	본래 용도	
寒瘧	柴胡加桂湯	三因極一病證方論	少陽傷風症	
	五積散	仁齋直指	寒瘧	
	古果附湯	濟生方	脾寒瘧疾	
熱瘧	柴苓湯	傷寒論	退熱止瀉	瘧痢에 응용 『雜病源流犀燭』에 영향
	黃連香茹散	太平惠民和劑局方	陰暑	
	白虎加參湯	傷寒論	傷寒 陽明病, 中暑	『雜病源流犀燭』에 영향을 끼침
	黃芩湯加桂少許	傷寒論	冬陽明病	
外感瘧 風瘧	柴胡桂枝湯	傷寒論	少陽病 惡寒	『雜病源流犀燭』에 영향을 끼침
	烏藥順氣散	太平惠民和劑局方	風氣가 四肢에 流走	
	敗毒散	症因脈治	風寒濕의 痢疾	
	參蘇飲	太平惠民和劑局方	體虛氣弱으로 外感和 內傷이 同時	
太陰瘧	異功散	小兒藥證直訣	小兒의 虛冷	
	理中湯	傷寒論	傷寒 太陰病	
	古棗附湯	醫學入門		『入門』 첫 응용
	附子理中湯	萬病回春	中寒의 厥症	『入門』 첫 응용
	五苓散	傷寒論	太陽病의 小便不利	『世醫得效方』에서 처음 응용
	朮附湯	金匱要略	風濕病	
	退黃丸	醫學入門	濕病	『入門』 創方
少陰瘧	小柴胡湯	傷寒論	少陽病	四物湯과 合方
厥陰瘧	小建中湯	傷寒論		『雜病源流犀燭』에 영향을 끼침
	四物湯	太平惠民和劑局方	心血 虧損으로 心悸怔忡	玄胡索 金鈴子, 附子을 加

129) 李梴. 醫學入門(下). 서울. 南山堂. 1991. p.1480.

130) 龔廷賢. 萬病回春. 서울. 法仁文化社. 2007. p.297.

內傷瘧	四獸飲	三因極一病證方論	七情+ 勞倦傷, 瘧痢	
瘧瘧	涼膈散	太平惠民和劑局方	臟腑積熱	柴胡, 檳榔을 더함
鬼瘧	辟邪丹	醫學正傳	怪疾	
勞瘧	雄朱丹	太平聖惠方	風痢	
	芎歸鱉甲散	仁齋直指	勞瘧	
	生犀散	太平惠民和劑局方	小兒의 骨蒸	
	鱉甲丸	備急千金要方	女人의 小腹積聚	勞瘧과 瘧母의 치료
	六君子湯	校注婦人良方	脾虛에 兼痰	
	補中益氣湯	脾胃論	脾胃氣虛로 身熱有汗	
	柴胡四物湯	素問病機氣宜保命集	虛勞에 약간 寒熱	升麻 紅花, 知母, 黃柏를 더함
	勝金丹	婦科玉尺	子瘧	吐法
	陰瘧丸	醫學入門	勞瘧 중 血虛	
	加味逍遙散	校注婦人良方	肝脾血虛 發熱, 盜汗	地骨皮를 더함
	人參養榮湯	太平惠民和劑局方	虛損	地骨皮, 烏梅, 麥門冬을 더함
	十全大補湯	太平惠民和劑局方	虛損	柴胡, 黃芩을 더함
黑錫丹	太平惠民和劑局方	脾腎久冷	柴胡, 黃芩을 빼고 附子를 더함	
橘皮煎丸	太平惠民和劑局方	久虛와 積冷		
痰瘧	柴陳湯	景岳全書·新方八陣	傷風 傷寒의 痰病	痰瘧, 食瘧
	二陳湯	太平惠民和劑局方	痰病	痰瘧, 食瘧
	單人參湯	備急千金要方	客熱	
	<b>露姜飲</b>	<b>醫學入門</b>	<b>痰瘧</b>	<b>「入門」創方</b>
食瘧	柴陳湯	景岳全書·新方八陣	傷風 傷寒의 痰病	痰瘧, 食瘧
	<b>平胃散</b>	<b>太平惠民和劑局方</b>	<b>脾胃不和</b>	<b>「入門」 첫 응용</b>
	清脾飲	三因極一病證方論	胃瘧	
	人參養胃湯	太平惠民和劑局方	傷脾의 痰瘧	
	<b>紅丸子</b> <b>古龍虎丹</b>	<b>太平惠民和劑局方</b> <b>丹溪心法</b>	<b>脾積</b> <b>四肢流注痛</b>	<b>「入門」 첫 응용</b> <b>「入門」 첫 응용</b>
瘧母	老瘧丸	三因極一病證方論	久瘧으로 癥瘕	
	鱉甲丸	備急千金要方	女人의 小腹積聚	勞瘧, 瘧母
	<b>芫花丸</b>	<b>備急千金要方</b>	<b>小兒의 心下痞</b>	<b>「入門」 첫 응용</b>
疫瘧	不換金正氣散	太平惠民和劑局方	四時傷寒과 瘧疫時氣	
	五積交加散	壽世保元	肝經氣虛에 風邪	
	<b>如意丹</b>	<b>醫學入門</b>	<b>溫疫</b>	<b>「入門」創方</b>
瘧痢	柴苓湯	傷寒論	退熱止瀉	熱瘧에 응용
	<b>六和湯</b>	<b>醫學入門</b>	<b>暑邪 癘亂</b>	<b>「入門」創方</b>
	清脾飲	三因極一病證方論	胃瘧을 치료	<b>「入門」 첫 응용</b>
	<b>三白湯 加味</b>	<b>醫學入門</b>	<b>虛煩 或泄或渴</b>	<b>「入門」 첫 응용</b>
	四獸飲	三因極一病證方論	七情+ 勞倦傷, 瘧痢	
	補中益氣湯	補中益氣湯	脾胃論	脾胃氣虛로 身熱有汗



通治	外感	祛邪丸	普濟方	瘧疾의 寒熱	
		勝金丹	婦科玉尺	子瘧	吐法
		黃連香茹散	症因脈治	暑濕 眩暈	大黃, 靑皮, 烏梅를 더함, 吐法
		二陳湯	普濟方	傷食으로 瘧疾	靑皮, 良姜을 더함
		神保丸	太平惠民和劑局方	心膈痛, 腹痛, 脇下痛, 便秘	下法
		大柴胡湯	傷寒論	少陽 + 陽明	下法
		桃仁承氣湯	校注婦人良方	瘀血로 小腹이 急痛	下法
		麻子仁丸	傷寒論	脾約證	下法
	內傷	人蔘, 白朮, 黃芪			『入門』 첫 응용
		當歸, 熟地黃, 知母, 黃柏, 芍藥			『入門』 첫 응용
	瘧痢	三白湯	醫學入門	虛煩 或泄或渴	『入門』 첫 응용
	通治	二陳湯	普濟方		外感: 六經 加減
					內傷: 四君子湯, 四物湯과 合方

표 2. 『醫學入門·瘧』 處方の 연원 및 특징

표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醫學入門·瘧』에서 그 이전의 處方을 단순히 인용한 것은 五積散, 芎歸蠶甲散, 淸脾飲(食瘧), 人蔘養胃湯의 5건에 불과하고, 나머지 대부분의 處方은 그 이전의 處方을 瘧疾의 病因, 病機에 따라 적합하게 분류하여 응용하였다.

특히 退黃丸, 露萎飲, 如意丹, 六和湯 등은 『醫學入門』에서 처음 만든 處方이며, 古棗附湯, 附子理中湯, 平胃散, 紅丸子, 古龍虎丹, 芫花丸, 淸脾飲(瘧痢에 응용), 三白湯 및 그 加味와 內傷瘧의 加味 등은 비록 그전에 있던 處方이지만 다른 질병에 사용되다가, 『醫學入門』에 와서야 비로소 瘧疾에 응용한 것임을 알 수 있다.

또한 柴胡加桂湯, 古果附湯, 柴苓湯, 黃連香茹散 등 대부분의 處方이 비록 예전부터 瘧疾에 사용되던 것이지만, 李梴이 자신이 제시한 症候分類에 따라 독창적으로 분류·응용하였음을 알 수 있다.

또한 柴苓湯, 白虎加參湯, 柴胡桂枝湯, 小建中湯 등은 『雜病源流犀燭』 등의 後世 醫書에 영향을 미쳤다.

### III. 結 論

『醫學入門·瘧』의 내용에 대해 瘧疾의 病因·病機,

症候分類, 治法과 處方の 측면으로 나누어 그 發展 成果를 繼承과 成果의 측면에서 고찰하여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첫째, 李梴의 『醫學入門·瘧』의 인용서적은 『世醫得效方』, 『丹溪心法附餘』, 『醫方捷徑』, 『醫學權輿』, 『玉機微義』, 『袖珍方』, 『仁齋直指』 등인데, 그 중 『三因極一病證方論』과 『普濟方』을 가장 많이 인용하고 있다. 특히 瘧疾의 症候分類는 『普濟方』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았다.

둘째, 瘧疾의 病因에 대해, 陳無擇이 처음으로 『三因極一病證方論』에서 外因, 內因, 不內外因으로 구분한 뒤로, 張子和, 張介賓이 그 學說에 반대하였지만 李梴은 陳無擇의 학설에 찬성하였을 뿐만 아니라 張仲景의 外感學說과 李東垣의 內傷學說을 계승하면서 李梴이 陰陽의 관점으로 外感和 內傷의 원인을 재해석하여 독창적으로 발명하였다.

즉, 瘧疾의 病因을 大陰陽의 관점에서 外感을 陽으로, 內傷을 陰으로 크게 구분하고, 다시 小陰陽의 관점에서 外感을 風暑의 陽과 寒濕의 陰으로 세분하

고, 內傷을 氣虛의 陽과 血虛의 陰으로 세분하였다.

셋째, 瘧疾의 病機에 대해, 嚴用和이 처음 제시한 痰瘧의 ‘無痰不成瘧’說에 대해 劉純이나 張介賓은 반대하였지만 李梴은 찬성하였고, 陳無擇이 처음 제시한 食瘧의 ‘食積成瘧’의 개념에 대해 張子和, 劉純, 張介賓 등은 반대하였지만 嚴用和, 吳昆, 李梴은 찬성하였다.

넷째, 李梴은 瘧疾의 症候를 暴瘧, 溫瘧, 內傷瘧, 瘴瘧, 鬼瘧, 勞瘧, 痰瘧, 食瘧, 瘧母, 疫瘧, 瘧痢 등으로 나누고 있는데, 『普濟方總論』중 瘧瘧, 濕瘧, 牡瘧을 제외하고 거의 모든 分類를 따른 것이다.

다섯째, 李梴은 瘧疾의 治法에 대해, 外感瘧은 汗, 吐, 下, 和 등을 사용하고, 內傷瘧은 ‘清痰 斂汗, 補胃脾’라고 하고, 다시 痰의 有無에 따라 구분하여 外感瘧과 內傷瘧에 각각 止汗 또는 發汗하는 약물을 제시하였다. 이는 李梴이 독창적으로 발명한 것이며 비슷한 시기의 『萬病回春』의 내용보다 훨씬 구체적이다.

여섯째, 李梴이 제시한 瘧疾의 處方들은 기존의 연구에서 알려진 바와는 달리 이전의 醫書나 方書を 단순히 인용한 것에 불과한 것이 아니다.

가령 退黃丸, 露姜飲, 如意丹, 六和湯 등은 李梴이 처음 만든 處方이며, 古棗附湯, 附子理中湯, 平胃散 등은 비록 그전에 있던 處方이지만 다른 질병에 사용되다가 『醫學入門』에 와서야 비로소 瘧疾에 응용한 것이다.

또한 柴胡加桂湯, 古果附湯, 柴苓湯, 黃連香茹散 등 대부분의 處方은 李梴이 스스로 제시한 症候分類에 따라 독창적으로 분류·응용한 것이다. 또한 그가 제시한 柴苓湯, 白虎加參湯, 柴胡桂枝湯, 小建中湯 등은 『雜病源流犀燭』 등의 後世 醫書에 영향을 미쳤다.

## 參考文獻

<論文>

1. 姜孝振, 丁彰炫, 張祐彰, 柳姪我, 白裕相. 瘧疾

發顯의 주체와 機轉에 대한 고찰. 대한한의학 원전학회지. 2012. 25(3).

2. 김동휘, 정창현, 장우창, 유정아, 백유상. 瘧疾의 刺絡瀉血 治療法에 대한 고찰. 대한한의학 원전학회지. 2011. 24(4).
3. 柳姪我, 朴贊國. 瘧疾의 症狀과 機轉에 대한 文獻의 考察. 대한한의학원전학회지. 1999. 12(1). p.17.
4. 윤석희. 瘧疾의 개념과 말라리아의 관계 연구 (소현세자의 질병기록을 중심으로). 경희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2.
5. 이승훈. 東醫實鑑의 瘧疾 處方에 多用되는 韓藥材에 대한 抗 말라리아 效能과 細胞毒性에 대한 研究. 원광대학교 한의학전문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03.

<單行本>

1. 高大民族文化研究所 中國語大辭典編纂室. 中韓辭典. 서울. 高大民族文化研究所. 1993. p.64, 1722.
2. 龔廷賢. 萬病回春. 서울. 法仁文化社. 2007. p.297
3. 과학백과사전종합출판사 編著. 제편집 동의학 사전. 서울. 도서출판 까치. 1990. p.1128.
4. 巢元方. 巢氏諸病源候論. 서울. 大星文化社. 1992. p.97, 98.
5. 沈金鰲. 沈金鰲醫學全書·雜病源流犀燭. 중국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2006. p.276.
6. 楊士瀛. 仁齋直指(『欽定四庫全書·子部·醫家類 12』中). 서울. 大星文化社. 1995. p.268.
7. 嚴用和. 嚴用和醫學全書·重輯嚴氏濟生方. 중국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2006. p.61.
8. 吳昆. 吳昆醫學全書·醫方考. 중국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2006. p.46.
9. 王肯堂. 王肯堂醫學全書·證治準繩·雜病·寒熱門·瘧. 중국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2006. p.49, 50.
10. 王懷隱, 陳昭遇 等 著. 裘沛然 編. 太平聖惠方·中華醫典CD(upgrade edition). 北京. 湖

- 南電子音像出版社. 2006.
11. 危亦林. 世醫得效方(『欽定四庫全書·子部·醫家類 12』中). 서울. 大星文化社. 1995.
  12. 劉純. 劉純醫學全書玉機微義. 중국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2006. p.157, 158. pp.70-71.
  13. 劉河間. 劉河間醫學全書素問病機氣宜保命集. 중국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2006. pp.141-142.
  14. 李東垣. 李東垣醫學全書活法機要. 중국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2006. p.146.
  15. 李用粹. 證治彙補. 北京. 旋風出版社. 1972. p.163.
  16. 李梴. 醫學入門(上). 서울. 南山堂. 1991. p.14, 15.
  17. 李梴. 醫學入門(下). 서울. 南山堂. 1991. p.1476, 1477, 1478, 1479, 1480, 1481. pp.1475-1476, 1477-1478, 1480-1481.
  18. 張介賓. (懸吐註釋)景岳全書. 서울. 法仁文化社. 2007. p.276, 280. pp.273-274.
  19. 張介賓. 張景岳醫學全書質疑錄. 중국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2006. p.1843.
  20. 張伯臾 主編. 中醫內科學.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96. p.491, 492, 493.
  21. 張子和. 張子和醫學全書儒門事親. 중국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2006. p.23.
  22. 張仲景. 仲景全書金匱要略. 서울. 大星文化社. 1992. p.361, 363.
  23. 趙佶. 聖濟總錄. 上海. 人民衛生出版社. 1992. p.736.
  24. 左丘明. 春秋左氏傳(人). 대전. 學民文化社. 1990. p.241.
  25. 朱震亨. 朱丹溪醫學全書丹溪治法心要. 중국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2006. p.345-346.
  26. 朱棣. 普濟方(『欽定四庫全書·子部·醫家類 21』中). 서울. 大星文化社. 1995. p.496, 500, 552, 566, 586, 604, 612, 617, 620. pp.495-496, 565-592, 620-629.
  27. 秦景明. 症因脈治. 臺北. 旋風出版社. 발행연도 미상. p.447, 452.
  28. 陳無擇. 陳無擇醫學全書三因極一病證方論. 중국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2006. p.79, 80, 81, 82.
  29. 洪元植. 中國醫學史. 서울. 東洋醫學研究院. 1987. p.259.
  30. 洪元植. 精校黃帝內經素問. 서울. 東洋醫學研究院. 1985. p.17, 130, 131, 136.
- <기타>
1. 바이두(<http://www.baidu.com>) 2013년 2월 15일 검색
  2. 오아시스(<http://oasis.kiom.re.kr>) 2013년 2월 15일 검색